

語形上으로 본 英語 單語의 強勢型

黃 彦 澤

本稿는 英語를 外國語로 對하는 우리가 英語 單語의 發音을 習得하려 할 때, 첫째, 強勢에 어느 정도의 比重을 두는 것이 좋을까, 둘째, 어떤 方向으로 強勢型을 豫言하는 것이 좋을까, 셋째, 強勢型을 보면서 發音을 豫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넷째, 나아가서, 語形을 통한 發音의 豫言에는 어떤 意義가 包含되는가를 이 順序를 따라서 살펴 본 것이다. 다만, 本稿의 考察 對象으로 삼은 發音은 이른바 一般 美國 英語(General American)라는 發音型이다.

1. 英語 強勢의 重要性

發音은 主로 分節音 (Segment : 母音·子音)과 超分節的 特性 (Suprasegmental feature : 主로 強弱·高低·長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中에서 比重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超分節的 特性이다. 發音을 노래에 比喩한다면, 分節音의 連結體는 歌詞에 해당하고, 超分節的 特性은 曲調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比喩한다면, 歌詞가 따르지 않는 曲調만으로도 音樂이라 할 수 있지만, 曲調가 따르지 않는 歌詞만으로는 音樂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超分節的 特性이 따르지 않는 分節音의 連結體만으로는 言語學的으로 意義있는 發音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動物이 어떤 方法으로 그들 相互間의 意思 傳達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動物이 내는 그 單純한 소리에도 強弱·高低·長短의 區別이 있음을 볼 때, 그 소리의 超分節的 特性이 그들 相互間의 意思 傳達에 이용되고 있다는 點만은 거의 確實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超分節的 特性은 人類도 包含한 廣義의 動物界에서 共通的으로 이용되는, 말하자면 分節音에 先行하는, 特性이라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같은 韓國人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어느 地方의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이 超分節的 特性에 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經驗하고 있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事前에 그 言語를 들을 機會를 웬만큼 가진 사람이라면, 실사 그 言語의 單語를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만을 들어서 그 言語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이 超分節的 特性에 依한 것이다. 正式으로 發音 練習에 들어갈 때에는, 우선

抑揚과 리듬을 다루어야 한다든지 (Lado, 1964: 79), 音의 分析을 하려 하기에 앞서, 먼저 그 言語의 멜로디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能力을 길러야 한다든지 하는 말도 (Gattegno 1972: 22), 結局은 이 超分節的 特性的 重要性을 強調하는 말이 된다.

超分節的 特性은 發音에서 이토록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어떤 外國語의 發音을 習得하려 할 때에는, 항상 그 外國語의 超分節的 特性的 흐름 속에서 各分節音의 發音을 習得해야 한다. Lado(1964: 76)도 指摘하고 있듯이, 子音과 母音을 먼저 가르치고 強勢·리듬·抑揚은 나중에 가르치거나 또는 전혀 가르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傾向이 있다. 이 傾向은 아직도 보인다. 우리가 어떤 外國語의 發音을 習得하는 過程에서, 韓國語에는 없고 그 外國語에는 있는 分節音의 發音 練習이 必要하다는 것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發音 練習 過程에 관한 한 方便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만으로 그 外國語의 發音 練習이 끝날 수는 없다. 어떤 超分節的 特性的 흐름 속에서 그 音이 나와야 하는가 가 훨씬 더 根源的인 問題다, 아무리 韓國語의 超分節的 特性이 그 外國語의 超分節的 特性과 大同小異하다 하더라도, 그 小異한 그 外國語의 超分節的 特性的 흐름 속에서 그 外國語의 分節音이 發音되어야 하는 것이다.

言語 사이의 超分節的 特性을 對比하는 한 方法으로서, 그 言語가 強弱 言語(stress language)·聲調 言語 (tone language)·音長 言語 (chrone language)의 세 가지 類型 中에서 어느 類型의 性格을 두드러지게 띠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方法이 있다. 語義를 辨別함에 있어서, 強弱이 그 辨別的 機能을 가지고 있는 言語를 強弱 言語, 高低가 辨別的 機能을 가지고 있는 言語를 聲調 言語, 長短이 辨別的 機能을 가지고 있는 言語를 音長 言語라고 한다. 強弱·高低·長短이 잘못 놓임으로써, 그 語義가 통하지 않거나 그 語義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 強弱·高低·長短은 辨別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한 言語가 위의 세 가지 類型 中에서 어느 한 類型의 性格을 두드러지게 띠고 있는 言語, 바꿔 말해서, 代表的인 強弱 言語 또는 代表的인 聲調 言語 또는 代表的인 音長 言語라면, 이 言語는 해당하는 바로 그 超分節的 特性에 훨씬 더 큰 比重을 두어야 할 言語가 된다. 여기에서, 代表的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辨別的 機能이 그 言語의 일부 單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全語彙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에 限하기로 한다.

韓國語는 強弱 言語的인 性格을 전혀 띠고 있지 않다. 慶尙道 方言은 聲調 言語的인 性格을 두드러지게 띠고 있지만, 이 方言은 韓國의 한 地方語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을 中心으로 한 中部 地方의 말은 音長 言語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나 (이렇게 보면, [nu:n](雪)과 [nun](眼)), 意味論的인 觀點에서, 韓國語에서는 強弱·高低·長短을 가지고서는 同音 異義語의 衝突을 決定的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見解도 있고 보면 (于時權·金宗澤, 1977: 175), 韓國語를 音長 言語로 봄에도 多少間 어려운 問題가 따른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어느 音節을 強하게 發音하든,

높게 發音하든, 길게 發音하든, 그 語義는 통하며, 또 그 語義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結局, 韓國語는 代表的인 強弱 言語도, 代表的인 聲調 言語도, 代表的인 音長 言語도 아니다.

그런데, 英語는 代表的인 強弱 言語다. 마치 代表的 聲調 言語인 中國語에서 聲調를 無視한 單語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英語에서 強勢를 無視한 單語는 존재할 수 없다. Prator(1972: 18)가 「말일 強勢를 두지 않을 音節에 強勢를 둔다면, 相對便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한 單語 속의 各 分節音도 重要하지만, 보다 더 重要的 것이 強勢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River (1968: 116)는 「똑똑한 英語로는 들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우리가 들은 말의 뜻을 토막토막 대어 붙여서 그 전체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內部 連接·強勢·抑揚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單語의 뜻만을 對象으로 Rivers의 이 말을 吟味해 본다면, 이 말은, 우리 自身은 英語 單語를 發音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英語 國民의 귀에는 그 強勢가 英語의 強勢 體系에 맞는 單語만이 英語로 들린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Wise (1957: 15)는 「外國人 學生들을 위해서 한 마디 덧붙여 두고 싶은 말은, 所謂 좋은 英語 發音을 習得하기 위해서는, 英語의 弱勢 體系 (unstressing system)를 터득한다는 것이 아주 重要的 點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런 學生들은 強音節의 母音만이 所謂 正常 音價로 發音되고, 弱音節의 母音은 [ə] 또는 [ɪ]로 弱화된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外國人 學生에게는 이러한 發音이 不注意한 發音처럼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逆說的인 말이 되기는 하지만, 英語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弱音節에 보이는 外觀上的 이 「不注意」를 꼭 지키도록 특별히 「注意」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音を 똑똑히 發音해야 똑똑한 發音이 되는 韓國語式 發音 樣式을 英語 發音에 그대로 適用, 英語 單語의 모든 音を 똑똑히 發音해야 똑똑한 英語 發音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一種의 警鐘을 울리고 있는 것이 上記 Wise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警鐘을 所重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英語 發音 習得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英語는 強弱 言語요 韓國語는 強弱 言語가 아니라는 點을 強하게 銘記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強勢型的 豫言

어떻게 하면 英語 單語의 語形만을 보고서 그 單語의 發音을 豫言할 수 있을까는 英語를 外國語로 對하는 우리로서는 꼭 解決하고 싶은 問題다. 이러한 問題를 조금이라도 解決할 수 있는 方向을 摸索해 본다는 뜻에서, 語形에서 發音에 이르는 그 中間에 強勢型이라는 디딤돌을 놓는 方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바꿔 말한다면, 英語 單語의 發音을 豫言하는 全過程을

- (1) 語形 → 強勢型 → 發音

4 는 문 집

으로 볼 때, 이 方法은, 우선 語形만을 보고서 그 強勢型을 豫言하고(語形→強勢型), 그 다음에는 그 強勢型을 더듬돌로 삼아서 發音을 豫言하는(強勢型→發音) 方法이다. 이를테면, *aptitude*, *general*, *honestly*, *profundity*, *situation*을 發音하려 할 때에는, 당장 이들 單語의 發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2) *âptitùde*, *général*, *hónestly*, *profúndity*, *situátion*

처럼 第一強勢 記號와 第二強勢 記號를 各各 그러한 強勢를 받는 音節의 母音字 위에 붙이고 나서, 이 記號 붙인 單語를 보면서 發音해 본다는 것이다. 結局, 語形만을 보고서 그 發音을 豫言하는 過程을 前·後 두 段階로 나눈다는 것인데, 이 中, 後段階인 「強勢型 → 發音」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章에서는 前段階인 「語形 → 強勢型」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흔히 英語의 強勢는 아주 複雜하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複雜한 樣相을 띠게 된 것은 英語 本來의 強勢體系에 借用語의 異質의인 強勢 體系가 끼어 들어와, 이것이 本來語의 強勢 體系와 共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本來語의 強勢는 單語의 第一音節(接頭辭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語幹의 第一音節)에 온다.

바꿔 말한다면, 本來語에서 強勢의 位置를 決定하는 起點은 語頭に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強勢 體系에 대해서 아주 異質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強勢의 位置를 決定하는 起點이 語尾에 있는 強勢 體系다. 곧, 語尾 音節 또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 또는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 등에 強勢가 오는 強勢 體系다. 이와 같은 異質의인 強勢 體系를 지닌 채 英語에 들어와 있는 借用語 中에서 主가 되는 것은 프랑스 借用語와 라틴 借用語다. 노르만 征服以後 프랑스 語가 한때 英國 上流層의 言語였다는 點과, 英國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라틴語가 차지해 온 位置를 생각할 때, 이 두 言語가 英語에 미친 影響이 아주 컸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文化史의인 理由 뿐만 아니라, 英語의 語彙面에서도 이 두 言語는 無視하지 못할 存在가 되어 있다. 다음의 (4)는 P. Roberts의 *Understanding English* (1958)에 나와 있는, 英語 語彙를 構成하고 있는 本來 要素와 外來 要素의 百分率이다(現代 英語學 辭典, 1973: 993).

(4)	라틴語	36
	英國 固有語	14

古期 프랑스語	12
近代 프랑스語	9
그리스語	4.5
스칸디나비아語	2
에스파냐語	2
이탈리아語	1
其他	13.5
出處 不明	6

이 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英語 語彙를 構成하고 있는 借用語 中에서 그 語數가 많은 것은 라틴 借用語와 프랑스 借用語요, 또 이 두 借用語를 합친 數는 本來語의 約 四倍가 되어 있고, 또 英語 全語彙數의 半을 조금 넘고 있다. 이러한 두 借用語가 本來語와는 異質的인 強勢 體系를 지닌 채 英語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빚는 英語 語強勢의 複雜相도 不得已한 結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複雜相을 보이고 있는 英語 單語의 強勢型을 豫言하는 한 方法으로서, 이 章에서는, 異質的인 強勢 體系의 適用 與否를 먼저 檢討하고, 만일 그 單語가 그러한 體系의 適用 對象이 되지 않을 때에는, 本來語의 強勢 體系를 適用한다는 方法을 考察하겠다. 本來語의 強勢 體系에 대해서는 簡略하나마 이미 (3)에서 言及했으므로, 結局, 異質的인 強勢 體系의 適用 與否를 語形을 통해서 考察하는 것이 이 章의 目的이 된다.

英語에 아주 큰 影響을 미친 프랑스語와 라틴語의 強勢 規則은 다음의 (5), (6)과 같다.

(5) 프랑스語 單語의 強勢는 語尾 音節에 온다.

(6) 라틴語 單語의 強勢는,

(a) 二音節語의 경우에는 第一 音節에 오고,

(b) 三音節 以上の 單語의 경우,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의 母音이

(i) 長母音 또는 二重 母音이거나, 또는 두 個 以上の 子音이 後續하는 短母音일 경우에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오고,

(ii) 그 外的 경우에는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온다.

(6a)는 本來語의 強勢 規則 (3)과 그 內容이 같으므로, (3)과 異質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6a)는 여기에서의 考察 對象에서 除外한다.

(4)에 依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語彙面에서는, 英語에 借用語를 供給하고 있는 言語는 라

6 는 문 집

틴語·프랑스語 뿐만 아니라 그 外의 言語들도 많은데, 強勢型의 面에서는, 上記 (5), (6b)만이 英語에 異質的 要素를 보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語는 그나름대로의 強勢 體系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 借用語는 그 大部分이 라틴語 또는 프랑스語를 통해서 借用되었기 때문에, 그 強勢型은 자연히 (5), (6b)의 影響을 받기 마련이다. 스칸디나비아語는 英語와 함께 게르만 語派에 屬하기 때문에, 이에 屬하는 借用語의 強勢型은 英語에 異質的 要素를 보태지 않는다. 에스파냐語나 이탈리아語는 라틴語의 흐름을 이어 받은 이른바 로만스語로서, 이에 屬하는 借用語의 強勢는 보통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오니, 結局, 이들 借用語의 強勢型은 위의 (6b)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의 「其他」에 屬하는 言語들도 거의 (3)과 (6b)에 依해서 그 強勢型이 說明될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 借用語 intelligéntsia (6b), 아라비아 借用語 admiral (3), 印度 借用語 búngalôw (3), 中國 借用語 gínsèng(3), 韓國 借用語 kímchi (3), 日本 借用語 kimóno (6b) 等. 말하자면, 借用할 그 單語가 強弱 言語의 單語이든 아니든, 本來語의 (3) 또는 借用語의 (5), (6) 中의 어느 것인가에 依해서 그 借用語의 強勢型을 決定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5), (6)은 強勢의 位置를 決定하는 起點을 語尾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語尾의 形態 中에서도 아주 큰 役割을 하는 接尾辭를 中心으로 強勢型을 豫言하는 節次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그 接尾辭가 다음 (7)의 接尾辭인지 아닌지를 檢討한다. (以下에서 例擧하는 接尾辭는 英語 接尾辭 中의 일부 主要 接尾辭다.)

- | | | | |
|---------|----------------------|----------------------|---------------------|
| (7) (a) | -ed (súgared) | -en (wóoden) | -er (fóreigner) |
| | -fold (mánifóld) | -ful (forgétful) | -hood (brótherhòod) |
| | -ing (búilding) | -ish (yéllowish) | -less (prófitless) |
| | -like (wómanlike) | -ling (dúckling) | -long (héadlông) |
| | -ly (desérvedly) | -ness (cárelessness) | -ship (pénmanship) |
| | -some (tróoublesome) | -wad (s)(éastward) | -way (s)(éndways) |
| | -wise (ótherwise) | -y (wátery) | |
| (b) | -or (cónqueror) | -ess (wáitress) | -age (advántage) |
| | -al (appróval) | -ment (góvernment) | -ure (expósure) |
| | -able (fáshionable) | | |

(7)의 接尾辭는 모두 單語의 第一強勢의 位置에 變化를 가져오지 않는 接尾辭로서, (7a)는 本來語系, (7b)는 借用語系다. 따라서, 그 接尾辭가 (7)의 接尾辭라면, 이 接尾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에서 第一強勢의 位置를 찾으면 된다. 이를테면, 여기 resistlessly란 單語가 있다고

할 때, -ly는 (7)에 屬하므로, 이것도 除去한 나머지 *resistless*의 第一強勢의 位置를 찾으면 되고, 또 -less도 (7)에 屬하므로, 이것도 除去한 나머지 *resist*의 第一強勢의 位置를 찾으면 된다. *resist*의 強勢型이 *resist*라면, *resistlessly*의 強勢型도 *resistlessly*가 된다.

(7)의 接尾辭인지 아닌지가 檢討된 後에는 다음 (8)의 接尾辭인 지아닌지를 檢討한다.

- | | | |
|------------------------------|--------------------------------|-------------------------------|
| (8) -ade (<i>lèmonáde</i>) | -aire (<i>quèstionnáire</i>) | -eer (<i>vóluntéer</i>) |
| -ee (<i>réfugée</i>) | -ese (<i>jōurnalése</i>) | -esque (<i>picturésque</i>) |
| -ette (<i>kitchenéte</i>) | | |

(8)은 語尾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 接尾辭로서, (5)에 依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프랑스 語系 接尾辭이거나 프랑스語 經由의 接尾辭들이다.

以上の (7)과 (8)의 接尾辭 以外の 接尾辭를 가진 單語는 一次的으로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그러한 接尾辭 中 主要한 것을 例擧하면 다음의 (9)와 같다.

- | | | |
|--------------------------------|----------------------------|------------------------------|
| (9) (a) -al (<i>nátural</i>) | -an (<i>repúblican</i>) | -ance (<i>útterance</i>) |
| -ant (<i>résonant</i>) | -ate (<i>éducáte</i>) | -crracy (<i>demócracy</i>) |
| -ence (<i>cómpetence</i>) | -ent (<i>éxcéllent</i>) | -fy (<i>púrifý</i>) |
| -ian (<i>physícian</i>) | -ical (<i>polítical</i>) | -ice (<i>ávarice</i>) |
| -ine (<i>díscipline</i>) | -ist (<i>ántágonist</i>) | -ite (<i>éboníte</i>) |
| -ive (<i>pósitive</i>) | -ize (<i>cívilize</i>) | -logy (<i>sôciólogy</i>) |
| -ous (<i>trémulous</i>) | -tude (<i>áttítude</i>) | -ty (<i>capácíty</i>) |
| (b) -ic (<i>éconómic</i>) | -ion (<i>protéction</i>) | |
| (c) -ism (<i>jōurnalism</i>) | | |
| (d) -ary (<i>sécretàry</i>) | -ory (<i>dórmítory</i>) | |

(9)의 接尾辭는 모두 라틴語系 또는 그리스語系로서, 그 大部分은 프랑스語를 經由한 것들이다. 프랑스語를 經由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語尾 音節에 第一強勢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며, 또한 語尾 音節에 있었던 이 第一強勢가 리듬에 依해서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로 移動했다는 뜻도 包含한다. 이처럼 리듬에 依해서 第一強勢의 位置가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로 移動했다는 說明은 Jespersen (1954: 164-73)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놓인다고 說明되고 있는 (9b)의 -ic, -ion도 (9a)의 接尾辭와 마찬가지로

로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 接尾辭로 取扱하고 싶다. Jespersen (p. 171)은 *rhétoric, héretic, pólitic, cátholic, chóléric, lúnatic, aríthmetic*의 第一強勢의 位置는 리듬에 依한 것이라고 前提하고 나서, -ic를 가진 大部分의 單語에서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데, 그 理由는 -ical, -icism의 語形 때문일 것이라는 說明을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ic의 強勢型을 -ical의 強勢型과 관련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ic도 (9a)의 接尾辭와 마찬가지로 取扱할 수 있을 것이다. 곧, -ical → -ic(al) → -ic. 또, -ion도 一般의으로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놓인다고 說明되고 있지만, Chaucer도 -ioun(=-ion)을 二音節로 사용했듯이 (Jespersen, 1954: 165), 이 -ion을 二音節로 본다면 (바꿔 말해서, 母音字 하나가 各 各 한 音節을 構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接尾辭도 (9a)의 接尾辭와 마찬가지로 取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母音字 하나가 한 音節을 構成한다는 말을 했는데, ou를 한 母音字로 생각한다면 (ou는 中期 英語 初期부터 [u:]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프랑스語式 綴字), 語尾 部分에서 한 母音字를 한 音節로 보는 것은 強勢型을 豫言하는 데 여러 가지로 活用될 수 있다. 이를테면, *auditórium, cêremónial, pátient, erróneous, dúbious, contémpuuous* 등도 모두 語尾에서 세 번째 母音字를 核으로 한 音節에 第一強勢가 놓인다. 또, (9c)의 -ism은 音聲學的으로는 二音節이기 때문에, *jóurnalism*의 第一強勢는 語尾에서 네 번째 音節에 있게 되나, 이 -ism은 -ist와 작을 이루는 接尾辭로서, 단지 音節數에 있어서 差異가 있을 뿐, 둘 다 그리스語에 源泉을 둔 接尾辭요, 또한 그 語形도 恰似하다. 만일 *jóurnalism*과 *jóurnalist*처럼 -ism과 -ist의 兩形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 單語의 第一強勢의 位置는 서로 같다. 따라서, -ist와 同一하게 -ism 全体를 單音節 接尾辭로 看做한다면, *jóurnalism*을 (9a)에 準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9d)의 -ary, -ory의 -y는 프랑스語의 強勢를 받는 母音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Jespersen, 1954: 167), -ary, -ory의 -a-, -o- 에 있던 強勢가 리듬에 依해서 語頭 쪽으로 두 音節만큼 移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上記 -ism 때와 마찬가지로, -ary, -ory를 各 各 單音節 接尾辭로 看做한다면, *sécrotàry, dórmitôry*도 (9a)에 準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놓인다는 (9)의 接尾辭의 경우에도, 이 -原則이 適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中 두 가지 경우만을 살펴 보겠다. 첫째는, *autumnal, elementary, manufactory, indignant, dependent* 등에 (9)에서의 原則을 適用한다면 (前述한 바와 같이 -ary, -ory를 單音節 接尾辭로 看做), **autumnal, *élémentary, *manufactory, *indignant, *dependent* 처럼 잘못된 強勢型이 나오는 경우요, 둘째는, *vacant, native, locate, silence, moral* 등에 (9)에서의 原則을 適用하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音節이 없는 경우다. 前者의 경우에 대해서는 (6bi), 곧,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의 母音이, 두 個 以上の 子音이 後續하는 短母音일 경우에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온다는 것을 適用함으로써, *autúmnał, éleméntary, mànufactory, indignànt, dépendént* 등을 얻을 수 있

다. 後者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10)을 設定함으로써, *vācant*, *nātive*, *lōcāte*, *sīlence*, *mōral* 등을 얻을 수 있다.

(10) 어떤 強勢 規則에 依해서 第一強勢가 있을 것이 豫想되는 音節이 語頭に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單語의 第一音節에 第一強勢가 온다.

이 (10)은 強勢 規則을 設定할 경우에 생기기 쉬운 複雜性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에서 設定된 것이다. 다음의 (11)을 보자. 묶음표는 接尾辭를 가리킨다.

- (11) (a) *rēson*(ant) *pōsit*(ive) *ēduc*(āte) *cōmpet*(ence) *nātur*(al)
 (b) *vāc*(ant) *nāt*(ive) *lōc*(āte) *sīl*(ence) *mōr*(al)

(11a)는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 單語들인데, (11b)는 語尾에서 두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 單語들이다. 만일 (11a)를 規則으로 보고 (11b)를 各 接尾辭 別로 생기는 例外로 본다면, 結果的으로는, 規則의 內容이 複雜해질 憂慮가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1a)와 (11b)의 兩者를 모두 하나의 規則 속에 넣는 方法으로서, 兩者 中의 어느 하나는 主가 되는 規則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從이 되는 但書로 만드는 方法을 생각해 보았다. 上記 (10)은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10)은 規則 (9)에 붙인 一種의 但書와도 같다.

以上이, 接尾辭를 中心으로 한, 第一強勢의 位置를 豫言하는 基本 方針이다. 整理하면, 첫째, 除去하더라도 強勢型에 變化를 가져 오지 않는 接尾辭인지 아닌지를 檢討한다. 둘째, 그 自体에 第一強勢를 가지고 있는 接尾辭인지 아닌지를 檢討한다. 셋째, 語尾에서 세 번째 音節에 第一強勢를 두게 하는 接尾辭인지 아닌지를 檢討한다.

이 章의 마지막으로 考察할 것은 第二強勢의 位置를 豫言하는 問題가 되겠으나, 第一強勢의 位置를 豫言하는 問題도 接尾辭를 中心으로 考察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앞에서 例擧한 바 있는 接尾辭가 第二強勢를 받는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다음의 (12)는 第二強勢와 關聯이 있는 接尾辭다.

- (12) (a) *-fōld*, *-fỳ*, *-hōod*, *-ism*, *-ize*, *-like*, *-lōng*, *-ship*, *-tūde*, *-wāy(s)*, *-wise*
 (b) (i) *-ate*, *-ful*
 (ii) *-ary*, *-ory*
 (iii) *-ine*, *-ite*

(12a)는 항상 第二強勢가 있는 接尾辭요, (12b)는 경우에 따라서 第二強勢의 有無가 定해지

는 接尾辭다. (12bi)은 品詞에 따라 第二強勢의 有無가 決定되는 接尾辭로서, -ate는 動詞(가령 *alternâte*)의 接尾辭로서, 複合 名詞나 複合 形容詞는 第二要素에 強勢를 둔다는 英語 本來의 傾向에 準해서, -âte처럼 第二強勢를 가지며, 名詞(가령, *alternâte*)나 形容詞(가령, *alternâte*)의 接尾辭로서는, 마찬가지로 理由로 -ate처럼 第二強勢를 가지지 않는다. 또 -ful은 名詞(가령, *hândful*)의 接尾辭로서는, 複合語의 強勢型에 準해서, -ful처럼 第二強勢를 가지며, 形容詞(가령, *béautifûl*)의 接尾辭로서는, 複合語의 性格이 稀薄하므로, -ful처럼 第二強勢를 가지지 않는다. (12bii)는 그 直前 音節에 強勢가 있고 없음에 따라 第二強勢의 有無가 決定되는 接尾辭로서, 直前 音節에 強勢가 있는 경우에는(가령, *sálarý, sâtsifáctôrý*), 리듬 때문에 -ary, -ory 처럼 第二強勢를 가지지 않고, 直前 音節에 強勢가 없는 경우에는(가령, *sânitârý, câtegôry*), 역시 리듬 때문에 -ary, -ory처럼 第二強勢를 가진다. (12biii)는 語尾 -e 때문에 第二強勢를 가지는 것이 原則으로 볼 수 있으나(가령, *álpine, dýnamite*), 使用 頻度가 높은 單語에서는 第二強勢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接尾辭다(가령, *génuine, fávorite*).

3. 音價의 豫言

強勢型을 보고서 發音을 豫言하려면, 첫째, 強勢 記號가 붙은 母音字의 音價, 둘째, 強勢 記號가 붙지 않은 母音字의 音價, 셋째, 子音字의 音價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셋째의 子音字의 音價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별로 問題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上記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만 各各 그 概要를 살펴 보겠다.

強勢 記號가 붙은 母音字의 音價를 代表 音價와 特殊 音價로 나눈다. 代表 音價란 一般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母音字의 音價를 가리키며, 特殊 音價란 그 母音字가 가지는 代表 音價 以外의 音價를 가리킨다. 一般的으로, 어떤 母音字의 代表 音價는 그 母音字의 名稱 속에 包含된다. 다음의 (13)은 몇몇 言語의 母音字의 名稱을 比較해 본 것이다.

(13) 母音字	라틴語	이탈리아語	프랑스語	에스파냐語	獨逸語	英 語
A	a	a	a	a	a:	ei
E	e	e	e	e	e:	ii
I	i	i	i	i	i:	ai
O	o	o	o	o	o:	ou
U(V)	u	u	y	u	u:	j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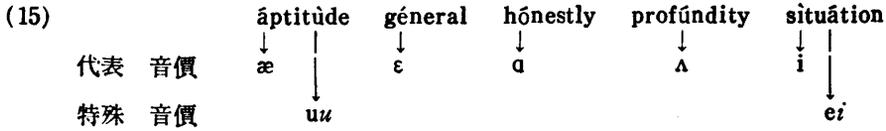
라틴語·이탈리아語·프랑스語·에스파냐語에서는, (13)에 나타나 있는 音이 바로 그 母音字의

代表音價다. 獨逸語에서는, (13)에 나타나 있는 音表記에서 長音 記號를 削除한 나머지 音이 그 母音字의 代表音價다 (가령, A[a:] 中の [a]). 그런데, 英語 母音字의 名稱 속에는 그 母音字의 代表音價라고 볼 수 있는 音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 물론, *nāme*[nēim], *thése*[ðéiz], *míle*[máil], *nóte*[nóut], *úse*[júuz]처럼 字母名이 그대로 나와 있는 예도 적잖지만, 이러한 音이 代表音價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도 않다. 더구나, 長母音이나 二重 母音 自体는 代表音價가 될 수 없다. 長母音은 分節音과 超分節的 特性(이 경우에는 長短)으로 다시 分析할 수 있고, 二重 母音은 두 母音으로 다시 分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代表音價는 短母音임과 同時에 單母音이어야 한다. 結局, 英語 母音字의 代表音價는 3 字母名 以外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單音節語에서 한 個의 子音字 (r은 除外) 앞에 나타나는 單母音字의 音價를 그 英語 母音字의 代表音價라고 定義한다. 代表音價는 短母音임과 동시에 單母音이어야 하기 때문에 (前述), 그러한 母音이 나타날 수 있는 環境이 上記의 定義 속에 反映되어 있다. 「한 個의 子音字」는 *mínd*, *cómb* 등을 除外하기 위해서요, r을 除外한 것은 *hér*, *sír*, *fúr* 등 전혀 同一하게 發音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單母音字」는 *máid*, *lóud* 등을 除外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上記 條件에 맞는 單音節語를 調査해 보면, *mán*[māen], *stép*[stép], *bíg*[bíg], *hót*[hát], *rún*[rán]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強勢 記號가 붙은 英語 母音字의 代表音價는 다음의 (14)처럼 나타낼 수 있다. 한 母音字의 特殊音價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中에서도 가장 代表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各 母音字의 名稱이다. 이것도 (14)에 같이 包含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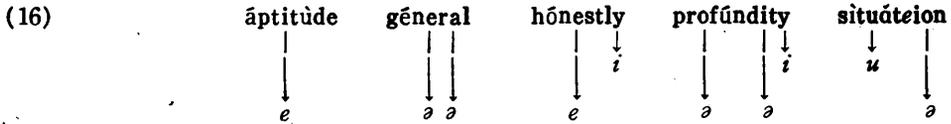
(14)	母音字	A	E	I(Y)	O	U
	代表 音價	æ	ɛ	i	ɑ	ʌ
	特殊 音價	eɪ	iɪ	aɪ	oʊ	(j)uʊ

어떤 경우에 (14)의 特殊音價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考察 方向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그 中 한 가지에 대해서만 言及해 보겠다. 그것은, 語尾가 「...+單母音字+單子音字+e」일 경우, 이 單母音字의 音價는 (14)의 特殊音價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例舉한 바 있는 *nāme*, *thése*, *míle*, *nóte*, *úse*의 強母音字의 音價가 이를 說明해 주고 있다. 지금 이 (14)를 이용한다면, 앞의 (2)에서 例舉한 바 있는 *áptítúde*, *général*, *hónestly*, *profúndity*, *situátion*의 強勢 記號 있는 母音字의 音價는



처럼 豫言할 수 있다. situātion의 [-éi-]는 situāte의 -āte에서 나온 것이다.

強勢 記號가 붙지 않은 母音字의 音價는, 그 母音字 如何를 莫論하고, [e, i, u]中的 어느 하나가 된다. 이 [e, i, u]는 各各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筆者의 「英語 弱母音考」(1976)에서 論한 바 있는데, 그 要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곧, [i]는 母音 앞과 接尾辭 -y, -ish, -ing, -ic 속에 나타나고, [u]는 母音 앞에 나타나며, 以上の 두 가지 경우 外는 [ə]가 된다. 지금 이것을 이용하면, (15)의 āptitūde, général, hōnestly, profūndity, situātion에서 強勢 記號 없는 母音字의 音價는



처럼 豫言할 수 있다. 앞에서, Wise (1957)도 「英語의 弱勢 体系를 터득한다는 것이 아주 重要」하다고 말하고 있듯이, 英語의 弱母音이, 그 母音字 如何를 莫論하고, [ə, i, u]中的 어느 하나가 된다는 것은 英語 發音 習得 過程에서 가장 基本的인 原則이다. 아마 英語의 發音이 다른 言語의 發音에 比해서 가장 特異한 點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바로 이 原則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 [ə, i, u]中에서도 우리가 특히 留意해야 할 音은 [ə]다. 英語 發音 習得의 初期 段階에 있는 우리 韓國人 學生들 中에는 [ə]를 「어」로 代置하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이 [ə]는 똑똑히 들리는 「어」도 弱하게 들리는 「어」도 아닌, 도대체 무슨 音인지 들어서는 分辨하는 어려운 曖昧한 音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똑똑한 發音」에 대한 韓國語와 英語의 概念 差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 [ə]의 경우다. 이렇게 본다면, 實로 [ə]는 英語 母音 中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장 重要的, 그러면서도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母音 이라 할 수 있다.

以上 強勢 記號가 붙은 母音字의 音價와 붙지 않은 母音字의 音價에 대해서 重要하다 생각되는 部分을 살펴 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두기 싶은 것은 單音節語의 強勢 記號 表示 問題다. 結論부터 먼저 말한다면, 單音節語에도 強勢 記號를 붙여야 한다고 본다. 英語 音聲學 書에서 語強勢를 論할 때에는, 二音節 以上の 單語에 대해서만 論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

는 理由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中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에, 強勢를 相對의 概念으로 把握하려는 見解가 있다. 隣接 音節보다 더 強하게 發音한다는 데에서 強勢가 나타나는 것이니, 隣接 音節이 없는 單音節語에서 強勢를 論한다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見解다. 그러나, 이러한 音聲學書에서도 거의 單音節語에 나타나는 強形 (strong form)과 弱形(weak form)에 대해서는 言及하고 있다. 이것은 單音節語에도 強勢와 弱勢가 있다는 것을 前提한 取扱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單音節語에는 強勢가 없다는 論은 成立하지 못할 것이다. 곧, 單音節語에도 強勢 記號를 붙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結論을 다른 角度에서도 誘導해 낼 수 있다. 그 角度란 音價다. 強勢의 有無에는 그 母音 音價의 變化가 따른다. 上述한 強形과 弱形이 그 좋은 一例다. 에스파냐語도 英語와 마찬가지로의 強勢 言語이지만, 에스파냐語에서는 強勢의 有無에 不拘하고, 各 母音은 거의 제 音價를 그대로 保存한다. 이탈리아語도 그렇고 프랑스語도 그렇다. 獨逸語도, e가 弱強勢일 때 [ə]로 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英語의 強勢 體系가 이들 言語의 強勢 體系와는 判異하게 된 根底에는 音價가 比重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強勢의 有無와 母音 音價의 變化와의 上述한 關係는 英語의 強勢 體系로 하여금 英語 特有의 것으로 만든 아주 強力한 原動力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英語 強母音의 代表 音價나 特殊 音價도 모두 單音節語에서 찾았다. 單音節語 中에는 弱形을 가진 單語도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할 때, 單音節語 속에는 英語 語強勢에 관한 거의 모든 現象이 內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한다면, 音價를 土台로 強勢를 볼 때, 單音節語에서 強勢를 排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無理의 根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單音節語에도 強勢 記號를 붙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4. 綜合 (語形과 發音)

以上 本稿를 통해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語形에 強勢 記號 (第一強勢 記號 또는 第二強勢 記號)를 붙인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語形을 통해서도 發音을 豫言할 수 있다는 點이다. 이렇게 強調하는 그 根底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英語 發音의 特徵 中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強勢를 받지 않는 母音 (=弱母音)은, 그 母音字 如何를 莫論하고, [ə, i, u] 中의 어느 하나가 된다는 點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英語 單語의 母音字 위에 그 母音字가 弱母音인지 아닌지를 區別할 수 있는 어떤 標識가 있다면, 上記 特徵은 그 單語의 發音에 反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標識는 強勢 記號가 代身할 수 있다. 여기에서, 英語 單語에 強勢型을 直接 表示할 必要性이 생긴다.

이 생각을 그 順序를 바꿔서 論述한 것이 本稿의 흐름인데, 그 흐름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音價다. 音價를 基準으로 할 때, 英語의 母音 體系는 強母音 體系와 弱母音 體系로 二分

되고, 이 中 弱母音 体系에 屬하는 母音은 上記 [e, i, u]의 세 母音 뿐이며, 그 外의 母音은 모두 強母音 体系에 屬한다고 보는 것이 筆者의 所見이다. 本稿 第三章은 이러한 所見에 立脚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本稿 第二章에서는 이러한 所見에 대한 言及이 없었지만, 그 章의 強勢型 問題 中에는 이 所見에 立脚해서 論할 수 있는 問題도 있다. 이를테면, 第二強勢에 관한 問題가 그것이다. 辭典에 따라서는 한 單語의 어떤 音節에 第二強勢 記號를 붙이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同一한 그 音節에 第二強勢 記號를 붙이지 않고 있는 辭典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音節의 母音이 [e, i, u] 中의 어느 하나인지 아닌지를 檢討하고, 그 中의 어느 하나라면 弱母音(곧, 無 記號), 그렇지 않을 때에는 強母音(곧, 第二強勢 記號)으로 본다는 것이다.

本稿 第二章의 題目과 第三章의 題目, 그리고 本稿의 여러 句에서 豫言이란 表現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表現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內包되어 있다. 하나는, 豫言하려면, 豫言하는 데 必要한 原則이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豫言은 能動的 活動에 連結되어 있다는 뜻이다. 本稿 第二章에서 論한 것은 語形을 보고서 그 強勢型을 豫言하는 原則이고, 第三章에서 論한 것은 強勢型을 보고서 각 母音의 音價를 豫言하는 原則이다. 이들 原則은 全原則 中의 一部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 內容도 여러 가지 內容 中의 一部에 지나지 않으나, 아무리 一部 原則, 一部 內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原則이나 內容 없이는 暗中 摸索이 되기 쉽다. 原則은 節次를 낳게 하고 節次는 活動을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豫言은 能動的 活動에 連結되어 있다. 復習보다 豫習에 더 큰 意義를 賦與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辭典 等に 表記되어 있는 어떤 單語의 發音을 보고난 다음, 그 表記대로 發音해 보려는 努力보다, 그 單語의 綴字만을 보고서 그 強勢型이나 發音을 豫言해 보려는 努力에 더 큰 意義를 賦與할 수 있다. 豫言에는 原則의 的 中 與否에 대한 意義 있는 關心이 따르기 때문이다.

單語에 直接 強勢 記號를 붙인다는 것은 綴字를 이용해서 英語의 超分節의 特性을 習得하는 한 補助的 方法이다. 一般적으로, 強弱과 長短은 發音 表記에서 나타내고, ,抑揚(한 文章 全体에 나타나는 高低)은 線이나 數字 等を 이요해서 한 文章 위에 나타낸다. 그런데, 本稿가 勸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發音 表記時에 나타내고 있는 強勢 記號를 따로 떼어 綴字上에 나타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表記法은 이미 一部 音聲學가 必要에 따라 사용해 온 方法으로서 別로 새로운 方法은 아니다. 또, 一部 言語에서는 *sofá*(에스파냐語) *unità*(이탈리아語), *príncipe*(포르투갈語) 처럼, 一般的인 強勢 規則에 벗어나는 單語에서 사용하고 있는 方法이기도 하다. 특히 英語가 自由 強勢를 가진 強弱 言語라는 點까지 考慮에 넣는다면, 綴字上에 強勢 記號를 붙인다는 것은 個別的인 單語의 發音 習得 뿐만 아니라 그 外 여러 가지 目的에도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言語에는 聽覺的인 面(音聲 言語)과 視覺的인 面(文字 言語)이 있는데, 前者의 媒体인 音聲이

主로, 後者의 媒体인 文字가 從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특히 發音 習得面에서는 文字를 全的으로 排除해야 한다는 論이나 方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論으로서, 文字의 活用法 如何에 따라서는, 이 文字를 통해서도 發音 習得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現代「文」明 社會의 生活에서 文字를 없애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또, 外國語 習得의 初期 段階에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段階를 벗어난 사람이 그 外國語를 接할 수 있는 機會는 現實情으로 보아 文字를 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單語의 文字(綴字)만을 보고서 그 單語를 發音해 보는 習得 過程은 不可避한 것이다. 綴字에 強勢 記號를 붙여 보자는 本稿의 論도 이러한 習得 過程의 一環이다.

引 用 文 獻

- 千 時權·金 宗澤 (1977). 「國語 意味論」서울: 螢雪出版社.
- 黃 彥澤 (1976) “英語 弱母音考,” 「논문집」 第7輯. 濟州大學.
- 「現代 英語學辭典」(1973.) 東京: 成美堂.
- Gattegno, C. (1972) *Teaching Foreign Languages in Schools: the Silent Way*. New York City: Educational Solutions.
- Jespersen, O.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 rep
London: Allen & Unwin.
- Lado, R (1964).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 Prator, C. H. (1972).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ivers, W. (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se, C. M. (1957). *Applied Phonetic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Summary—

Stress Patterns Based on Word Forms

Hwang Un-taek

The step toward the prediction of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 may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prediction of stress patterns based on word forms, and that of the phonetic value of each segment of stressed and unstressed syllables. In other words stress patterns are to be used as stepping-stones to the prediction of the pronunciation of words.

The reason why the stressing system of present-day English is complicated is that the originally simple rules governing English stress are somewhat obscured with a mixture of French and Latin stresses. In Germanic languages including English the main stress is chiefly placed on the first syllable of each word, whereas in French on the last syllable and in Latin on the penultimate or antepenultimate syllable.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suffixes are examined to predict the location of the stress in the majority of English words. The first suffixes to be considered are those which do not affect the position of the main stress. If a word has one of these kind of suffixes, the learner may remove it from the word and find the stress in the remaining part of the word. The next suffixes to be examined are those which themselves have the main stress. These kind of suffixes, chiefly from French, have peculiar forms, as -eer, -ette, etc. hardly reducible to weak-stressed vowels. The final suffixes to be dealt with are those, chiefly from Latin, which generally cause the stress to be put on the antepenultimate syllable. If a word does not have one of the three kind of suffixes above, then we will safely predict that the word will have the main stress according to the native system of English stress.

The prediction, based on stress patterns, of vowel values is considered from two different angles: the values of strong-stressed vowels and those of weak-stressed. The strong-stressed vowels are divided into typical and special values, the former being a[æ], e[ɛ], i[i], o[ɑ], u[ʌ] and the latter a[ei], e[ii], i[ai], o[ou], u[(j)uw], etc.

The weak-stressed values are [ə, i, u] irrespective of vowel letters.

Although it is often said that language is speech, not writing, writing has its own position and significance in the English language. Even if the beginner may learn English pronunciation solely through sound, he will find himself among books after the early stages of learning if he hopes to improve his English.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is article tries to make use of word forms to predict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